

법치수호의 날을 기념하여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및 법치수호센터가 출범합니다.

일시: 2019. 4. 25. 10:00am~12:00pm

장소: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지하1층 대회의실

축사: 정홍원 전 총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권성 전 재판관

오는 4월 25일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시키는 제56회 법의 날입니다. 그러나 자유와 법치를 염원하는 우리 변호사들은 현 정부 하의 참담한 법치파괴 앞에서 법무부 및 대한변협의 법정기념일 행사와는 별도로 ‘법치수호의 날’ 행사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2년도 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그 동안 쌓아온 자유와 법치의 공든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북핵 위기를 해결한다며 민족과 평화라는 미명 아래 자유와 법치를 제물로 바치려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드루킹·김경수 판결에서 보듯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주권주의를 근거에서 부정하는 여론조작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한민국의 멸망을 재촉하는 정부의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자유와 법치 및 시장질서 파괴에 양심적 변호사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를 염원하는 변호사들과 그 단체들은 연합하여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을 발족하여 ‘법치수호센터’를 출범하고, 문명적 자유와 법의 지배, 적법 절차 이념이 관철되는 사회를 이룩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용기 있고 깨어 있는 변호사들과 시민들의 지지를 갈망하며 오는 25일 ‘법치수호의 날’에 참석하셔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연대(자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국변),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자유와 인권연구소,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고영주), 바른사회시민회의(박인환), 행동하는 자유시민(이언주, 백승재, 홍세욱),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연대(도태우)

2019. 4. 22.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현, 채명성